

정통부, 전파사용료 차등화방안 확정

- 셀룰러와 PCS사업자 전파특성에 따라 1:0.7의 비율로 차등화 시행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이동통신시장의 이동전화(셀룰러)사업자와 개인휴대전화(PCS)사업자간의 전파특성에 따른 전파사용료 차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파사용료 차등화방안은 지난 2003년 7월에 발표한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800MHz 대역을 보유한 선발사업자(셀룰러)와 1.8GHz대역을 보유한 후발사업자(PCS)간의 전파특성(Propagation)에 따른 시장지배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검토되어 왔다.

이번 전파사용료 차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전파사용료의 세입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산식에 800MHz대역을 보유한 이동전화(셀룰러)사업자와 1.8GHz대역을 보유한 개인휴대전화(PCS)사업자간 1 : 0.7의 비율이 적용되는 전파특성계수를 신설하여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 전파사용료 부과산식

$$\text{전파사용료} = (\text{가입자 수} \times \text{단가}) \times \text{감면계수} [1 - (\text{공용화감면계수} + \text{로밍감면계수} + \text{이용효율감면계수})] \times \text{전파특성계수}$$

※ 전파특성계수

구분	전파특성계수
~1GHz 미만	1.16
1GHz이상~ 3GHz미만	0.81

주 : 전파특성계수 비율은 현행 전파법의 주파수대역 비율 및 외국사례 참고

이번 전파사용료 차등화에 따라 SKT의 납부액은 연간 약 200억 원(추정치) 증가하게 되고, KTF와 LGT의 납부액은 연간 각각 135억원(추정치)과, 65억원(추정치)정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2GHz대역 IMT-2000 전환시 현재보다 약 20% 감면된 전파사용료를 적용받게 된다.

※ 전파사용료 차등화 결과(추정치)

(단위:억원)

구분	LGT	KTF	SKT
사용료 총액	336	720	1245
차등적용	271(△65)	585(△135)	1445(200)

주: 전파사용료 총액은 2002년 4분기를 기준으로 추정함

이를 가입자당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규모인 전파사용료가 800MHz대역을 보유한 이동전화(셀룰러)사업자는 2300원, 1.8GHz대역을 보유한 개인휴대전화(PCS)사업자는 1600원 규모로 각각 증감하게 된다.

이번 전파사용료 차등화 방안은 전파법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올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2년정도 시행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및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